

국제유가 70달러선 회복... 정유업계, 하반기 실적반등 박차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경제 활동 ↑
항공유 등 글로벌 석유수요 개선
국제유가 지속 상승시 수익성 증가

정유업계가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며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 회복과 함께 점차 업황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시장 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다. 점차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올해 1월 초 50달러대였으나 이달 들어 70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올 초 47.62달러까지 떨어졌던 WTI(서부텍사스산 원유)도 3개월 연속 배럴당 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국제유가는 각각 ▲두바이유 72.01달러 ▲브렌트유 72.86달러 ▲WTI 70.88달러 등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석유



현대오일뱅크 초저유황선박유(VLSFO) 설비.

수요 증가 기대감 지속과 IEA의 석유 생산 증대 필요성 주장 등으로 상승했다”라며 “석유 시장 분석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로 석유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정제마진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 등의 비용을 뺀 가격이다. 정유사마다 상이하나 통상 배럴당 4~5달러를 BEP(손익분기점)로 본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3.2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전주 대비 0.1달러 증가한 5월 넷째 주만 제외하고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5월 셋째 주부터는 계속 1달러대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 정제마진은 ▲5월 3주 1.6달러 ▲5월 4주 1.7달러 ▲6월 1주 1.4달러 ▲6월 2주 1.3달러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 정유사가 흑자로 전환했던 올해 1분기와 달리 2분기는 성적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

르면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스오일은 올해 2분기 각각 영업이익 3,596억 원, 3,631억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 분기 영업이익의 5,025억 원, 6,292억 원 대비 28.4%, 42.3%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도 향후 수요 정상화 상황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4일 이사

회에서 내년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당사 주식 처분 절차로 인해 상장 추진이 중단된 이후 처음 재개된 것이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유사들도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유사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글로벌 정유 시설의 가동률이 높아 정제마진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 정유사는 기존 저렴하게 구매해왔던 원유를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대신증권 한상원 연구원은 “정제마진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다. 다만 수요 개선에 따른 업황 회복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연초 미국의 한파에 따른 대규모 가동 차질 사태 덕분에 고위 재고 소진 등 반등의 여건도 마련됐다”라며 “향후 가장 주목할 제품은 항공유다. 코로나에 따른 피해가 가장 컸던 제품으로 여전히 회복의 여력 역시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 초대형-초소형 양극화

8월 갤럭시 신형 폴더블 공개 전망
Z폴드3, 7.5인치·S펜 지원 유력

바형 스마트폰, 작고 가볍게 변화

차세대 갤럭시가 온다. 폴더블에 높은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요까지 집어삼킬 조짐이다. 바형 스마트폰은 반대로 더 작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월 갤럭시 Z 폴드3와 플립2를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8월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공개하던 때다. 올해에는 갤럭시 노트 대신 폴더블폰 신작으로 대체하는 것. 일단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를 단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차기작 출시를 늦추는 것뿐,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것.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노트 시리즈가 더이상 시장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이에 있는 ‘패블릿’으로 실질적인 플래그십 역할을 했지만, 일반 스마트폰도 그만큼 커진데다가 S펜 지원 모델도 늘어나면서 독창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트 대신 출시될 Z폴드3는 접으면 6.2인치, 펼치면 7.5인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는 첨단 기술인 언더디스플레이 카메라(UDC)에 S펜까지 지원할 계획, 갤럭시 노트 시리즈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 셈이 된다.

가격도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폴더블폰 가격이 높은 탓에 보급이 쉽지 않았지만, 신작부터는 가격을 최소화해 본격적으로 노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레츠고디지털이 예상한 갤럭시Z폴드3

/레츠고디지털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개한 S폴더블.

/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에 쫓긴 태블릿은 더 커지고 있다. 갤럭시 탭 S7과 S7 플러스가 각각 11인치, 12.4인치로 노트북에 가까워졌다. 태블릿과 노트북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5인치에 달한다. 아울러 트위터안 등은 삼성전자가 내년 2번 접는 형태의 10인치 크기 태블릿까지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S 시리즈는 더 작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위터안 등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2는 6인치에서 6.8인치로 전작보다 0.1인치 안팎으로 축소된다.

바형 스마트폰 시장도 작은 모델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6.1인치의 아이폰12였다. 그 다음으로 판매된 샤오미 레드미 9A와 레드미9도 대형 모델인 레드미 노트9보다 순위가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스마트폰 수요가 폴더블로 넘어가면서,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 수요만이 남을 수 있어서다.

다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대형 제품이 앞서있다. 애플도 아이폰12 프로맥스와 12, 프로 순, 갤럭시 S21도 울트라와 일반 모델, 플러스 순이었다. 대형 바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내년 노트 시리즈 출시 기대감도 여기에서 나온다. 갤럭시 S21이 S펜을 지원해도 부진했던 이유가 노트 시리즈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유를 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내년에 다시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정부, ‘CCU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2050 탄소중립 실현 중점기술 선정
CO2 포집비용 톤당 \$30 수준 절감

정부는 2030년 CO2 포집비용 톤당 \$30 수준으로 절감하고,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상용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형 CCU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는 ‘바이오헬스 규제 과학 발전전략’도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세계 각국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배출된 CO2를 흡수해 처리하기 위한 CCU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기술 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로드맵은 2040년까지 기존 시장 가격 수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해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

로 구분, 시기별 마일스톤 제시 등 개발 전략을 도출했다.

상용화 기술군은 핵심기술이 확립돼 있고, 203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며,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군은 2050년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기술로,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70/tCO2 수준인 포집비용을 2050년까지 \$20/tCO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두번째로 CCU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실증·사업화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위한 ‘(가칭)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해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 소규모로 추진 중인 포집·전환 공정 실증을 중대 규모로 격상해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 R&D 매칭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된 CCU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 CO2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CCUS 총괄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보급, 제도 개선, 국제 협력 등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국제적으로 CCU 기술이 CO2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